



Asian Productivity Organization
“The APO in the News”

Name of publication: Newsis (17 November 2014, Republic of Korea)
 Page: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117_0013300112

" 韓 근로자 노동생산성, 싱가포르 근로자의 64% 수준 "

등록 일시 [2014-11-17 11:00:00]

아시아 경쟁국의 노동생산성 비교('13년 기준)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근로자당 생산성	58,700달러	63,300달러	74,600달러	92,000달러	90,200달러
시간당 생산성	26.5달러	36.6달러	35.5달러	42.0달러	40.4달러

* 아시아생산성기구(APO), APO Productivity databook 2013

아시아 경쟁국의 임금수준 비교

구분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명목임금	ILO('12, 월임금)	2,701달러	2,939달러	1,502달러	3,404달러	1,647달러
	BLS('12, 시간급)	16.27달러	28.94달러	8.09달러	20.13달러	-
실질임금	World Salaries ('05, 월임금)	2,598달러	2,418달러	2,162달러	1,757달러	1,546달러
	BBC('09, 월임금)	2,903달러	2,522달러	-	2,616달러	1,545달러

- * ILO, Global Wage Database(일본은 '11년 월평균 임금 기준)
- *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in Manufacturing, 2012
- * World Salaries, Manufacturing Sector Average Salary - International Comparison
- * BBC, BBC NEWS MAGAZINE, Where are you on the global pay scale?

대한상의 "임금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규제보다 생산성 높여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경쟁국 중 가장 낮지만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 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아시아 경쟁국의 근로시간·임금·생산성 비교 및 시사점' 자료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할 때 장시간 근로 국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아시아생산성기구(APO)의 자료를 인용,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쟁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AP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자당 노동생산성을 보면 싱가포르(9 만 2000 달러)와 홍콩(9 만 200 달러)이 가장 높고 이어 대만(7 만 6400 달러), 일본(6 만 3300 달러), 한국(5 만 8700 달러) 순이다.

쉽게 말해서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싱가포르 근로자의 64% 수준이라는 것.

시간당 노동생산성도 싱가포르가 42.0 달러로 가장 높고 홍콩(40.4 달러), 일본(36.6 달러), 대만(35.5 달러) 순으로 한국은 26.5 달러에 그쳐 싱가포르, 홍콩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했다.

대한상의는 복수의 국제자료를 통해 한국의 임금수준은 경쟁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에 따르면 2012 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월임금은 2701 달러로 대만(1502 달러), 홍콩(1647 달러)보다 높았다. 또 미국 노동통계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 자료에서도 2012 년 기준 한국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6.27 달러로 대만(8.09 달러)보다 2 배 이상 높았다.

대한상의는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기준(PPP) 임금은 홍콩, 대만은 물론 일본, 싱가포르보다 높아 경쟁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한국의 근로시간이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 많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1 년 기준 아시아 경쟁국의 연간 실근로시간 국제데이터(Penn World Table)를 보면 홍콩이 2344 시간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싱가포르(2287 시간), 한국(2193 시간), 대만(2144 시간), 일본(1706 시간) 순이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2012 년 기준 자료에서도 싱가포르(2409 시간), 한국(2289 시간), 일본(1727 시간) 순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한국이 1 인당 국내총생산(GDP)가 2 만 975 달러로 싱가포르(5 만 5182 달러), 홍콩(3 만 7955 달러), 일본(3 만 8468 달러)보다 낮으면서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규제에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4월 국회의 정년 60세 의무화 입법, 12월의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에 이어 올해는 근로시간 단축까지 노동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초 발의된 '비교적 온건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노동계 등에 반대에 부딪친 것을 예로 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 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기업규모별 6단계로 나눠 시행하자는 내용"이라며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은 고임금 부담에 생산량 차질까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노동규제 강화가 아닌 생산성 향상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우리나라가 경쟁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낮고 임금은 높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joinon@newsis.com